척박한 기초과학의 튼실한 주춧돌

'대우학술총서' 자연과학 분야 100권 돌파

대우재단(이사장 이석희)이 '한국의 학술 연구 진작'을 목적으로 지원, 출발한 '대우학술총서'가 300권 출간을 앞둔 가운데 자연과학 분야의 논저목록만 100권을 넘어서 출판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의 자연과학총서 100권 돌파는 이상선 교수(한양대 식품영양학)의 「리보플라빈」 출간으로 이뤄졌다. 이로써 지난 84년 김진의교수의 「소립자와 게이지상호작용」을 첫권으로 시작한 이후 수학 18종 물리학 18종 화학 27종 생물학 13종 지질학 7종 천문학 2종 기타 14종 등의 논저가 탄생하게 됐다.

'자연과학 총서'는 특히 기초분야의 학술논저가 빈약한 한국 과학계에 본격적인 전문과학 연구서들을 정착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들으며 주목을 끌었고 이는 각종 저작상과 출판상 수상 등으로 이어졌다.

83년 첫 시행된 한국과학상 대상이 자연과학총서 1권인 「소립자와 게이지 작용」의 김진의교수에게 수여됐는가 하면 90년 3·1문화상 학술상은 「자기공명방법」의 조성호교수에게 돌아가는 등 화제를 모았다.

특히 자연과학 분야의 논저 및 저자가 전문분야 학술상을 수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86년 한국과학기술도서상 저술상에 「한국지질론」을 낸 장기홍교수가, 87년 경향전기에너지대상 학술부문 장려상에 「석탄에너지 변환기술」을 저술한 김상돈교수, 90년 대한요업협회 학술상에 「결정화 유리」를 낸 김병호교수가 각각 수상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개별저작뿐 아니라 84년 한국출판문화상 자연과학분야에 '대우학술총서' 전체가 제작상을 받은 것 또한 국내 과학도서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공적을 인정한 경우다.

현재 94년까지 선정된 500여 과제 가운데 지원이 확정된 350여 과제가 연구 및 집필 진행중. 대우재단측은 앞으로도 생명과학 등 국내연구가 미진한 분야를 계속 지원할 뜻을 밝혔다.

자연과학 분야 출간 도서

수학

▲지동표, 국소적형태의 Atiyah-Singer지표이론 ▲이현구, 미분위상수학 ▲김종식, 편미분방정식론 ▲김상문, 복소다양체론 ▲김도한, 후리에 해석과 의미분작용소 ▲박대현, 급변론 ▲박을룡, 리이만기하학 ▲박승안, 군표현론(群表現論) ▲하기식, 비선형 편미분방정식론 ▲구자홍, 확률론 ▲양재현, 벡터속이론 ▲김상문, 수학기초론 ▲박재걸, 군환론 ▲조영현, 대수기하학 ▲임채호, 등각장론 ▲김성인·배도선, 베루누이시행의 통계적 분석 ▲우무하·김재룡, 대수적 위상수학 ▲장건수, 파인만 적분론

물리학

▲김진의, 소립자와 게이지상호작용 ▲이병호, 동력학특론 ▲김두철, 상전이(相轉移)와 임계현상 ▲정운혁, 원자핵반응론 ▲조성호, 자기공명방법 ▲최덕인, 플라스마물리학과 핵융합 ▲소광섭, 대통일이론 ▲김덕주, 금속전자계의 다체이론 ▲이철훈, 일반상대론 ▲김종진, 레이저 광산란 분광학 ▲민동필, 핵구조물리학 ▲이상수, 양자광학 ▲모혜정, 에너지띠이론 ▲김영덕, 양자전기역학 ▲이재형, 양자장이론 ▲조순탁, 통계역학 ▲엄정인, 다체계론 ▲김병택, 중핵반응론

화학

▲진종식, 촉매작용 ▲옥항남, 뫼스바우어 분광학 ▲윤능민, 수소화붕소와 유기붕소화합물 ▲강석구, 항생물질의 전합성 ▲박준우, Mucopolysacchrides의 생화학 및 생물리학 ▲김성각,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우원식, 천연물화학연구법 ▲조의환, 고분자의 화학반응 ▲이익춘, 분자궤도이론 ▲정경훈, 반응속도론 ▲진정일, 액정중합체 ▲박인원, 단백질 생합성 ▲김명수, 질량분석학 ▲주충로, 생체에너지 ▲김형만, 생체막 ▲서정헌, 효소반응속도론 ▲소현수, 분자 분광학 ▲여철현, 비기체연소합성법 ▲이대운, 크로마토그래피 ▲김양, X-선 결정학 ▲이석현, 고분자의 구조와 형태학 ▲현명호, LC에 의한 광학이성질체 ▲김완주·김득준, 스테로이드화학 ▲이철수, 비가역열역학 ▲김용준·김익중, 생리활성을 가진 C-P화합물의 화학 ▲서정헌, 생물 유기화학 ▲윤석승·조남숙·이재근·장인순, 유기전이 금속화합물

생물학

▲송승달, 질소고정 ▲고철환, 수리분류학 ▲부경생, 곤충신경생리학 ▲박찬웅·김승업, 신경과학 ▲심재형, 해양오염과 생태계 ▲추종길, 곤충의 사회행동 ▲배무, 산업미생물학 ▲서유헌, 신경전달물질 ▲이양림, 발생과 유전자 발현 ▲남상열, 방사선생물학 ▲강만식, 신경세포생리학 ▲김승업, 조직배양 ▲박무영, 응용미생물학

지질학

▲장기홍, 한국지질론 ▲백광호, 해양미고생물학 ▲김수진, 한국의 광물종 ▲이하영, 한국의 고생물 ▲이민성, 화성암성인론 ▲김규한, 동위원소지질학 ▲이용일, 석유지질학

천문학

▲홍승수, *Astrophysics* ▲이시우, 천문관측과 분석

기타

▲김영식, 과학혁명 ▲정용재, 찰스 다윈 ▲김병호, 결정화유리 ▲김상철, 파괴역학 ▲김상돈, 석탄에너지 변환기술 ▲권숙인, 복합재료 ▲박용수, 금속부식 ▲한영렬, 정보이론, ▲이만영, BCH부호와 Reed-Solomon부호 ▲김윤신, 실내환경과학 ▲승정자, 극미량원소의 영양 ▲김숙희, 지방영양 ▲이상선, 리보플라빈 ▲김일순, 역학적 연구방법

철학적 탐구

L 비트겐슈타인 지음/이영철 옮김/384면/8,500원

20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중 한 사람이며 분석 철학의 전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비트겐슈타인의 대표적 저작으로, 의미, 이해, 명제, 논리의 개념, 수학의 기초, 의식의 상태 등에 대한 생각을 다루고 있다.

미네르바의 올빼미: 철학이란 무엇인가?

C.J. 본템포, S.J. 오델 엮음/윤용택 옮김/320면/7,000원

철학이란 무엇이며, 철학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책으로, 철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가견이 있고 영향력 있는 18명의 현대 철학자들에 의해 씌어진 철학 입문서이다.

책임의 원칙: 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한스 요나스 지음/이진우 옮김/384면/8,500원

지구의 종말이라는 생태학적 위기에 직면한 인간의 실존 상황에 대해 고찰한 환경 철학서로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기존의 전통 윤리학으로는 현재의 생태학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 "책임의 명법"을 제시한다.

급변하는 흐름 속의 문화

CA 반 퍼슨 지음/강영안 옮김/320면/9,000원

우리가 함께 구상해야 할 미래 문화에 대한 철학적 전망을 담고 있는 문화 철학서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사물 인식과 가치 판단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문화를 주관을 가지고 통찰할 수 있는 시각을 길러 준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대표전화 924-6161 팩시밀리 922-4993